

95 여성농민반 분반자료

위대한 어머니, 여성농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02)529-6349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02)961-0667

자료 순서

1. 여성농민, 여성농민운동 / 3
2. 95년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 11
3. 여성농민분반 활동론 / 16

여성농민, 여성농민운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조직위원장 박만숙

1. 들어가는 말

우리 엄마 손
쭈글 쭈글

더덕살이도
많이 생긴 우리 엄마 손

곡식을 베고 매고 꺾은
철사같은 우리 엄마 손

운수분교 4학년 김종희 어린이의 글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속담과 위의 글을 함께 보자. 전혀 연관성을 찾기 힘든 양 면의 괴로움을 둘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여성농민'이다.

'나' 아닌 '남'이다 싶으면 결코 속마음을 보이질 않는, 그래서 가슴 속 깊이 온갖 한을 새겨 곧 폭발할, 속이 꽉찬 이들이 '여성농민'이다.

농촌활동에서 만나는 어머니들께 우리 사회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성농민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여성농민의 삶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 속에 깊이깊이 쌓여있는 뜨거운 용어리에, 한치라도 가까이 함께 해볼까 하는 열정과 사랑만이 모든 농촌활동의 기본 마음가짐이 돼야 한다.

2. 여성농민은 누구인가

여성농민은 650만 농민의 절반의 사람이다.(51.7%) 그리고 농민의 아내이다. 농민의 아내이지만 더이상 가정주부는 아니다. 가사노동이나 농한기부업은 그야말로 부

업이고 농업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촌 부녀자나 농촌 여성이란 모호한 말 대신 여성농민이라고 부른다. 최근들어 정부에서조차 농업생산 기여도에 있어 여성농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주체로서의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그 어느곳에서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말해 여성농민은 말그대로 여성문제와 농민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한 여성농민의 하루일과를 살펴봄으로 여성농민의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 접근해 보자.

새벽 4시 기상. 밥을 안치고 돼지밥, 개밥 등 나를 기다리는 댜수같은 짐승들에게 밥을 준다. 아이구, 이놈들은 나보다 밥을 먼저 먹네그려.

어제 남편과 아이들이 이리저리 던져놓은 빨래거리를 주섬주섬 담아 하이타이 풀어 물에 담궈놓고 마당에 후다닥 비질을 한다. "나라가 농민을 팔아먹네, 쌀이 수입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여" 주절주절 거리며 술취해 들어온 남편을 위해 술국을 끓여놓고 집앞 손바닥만한 밭에 이리저리 김매기를 하고 들어오면 6시.

"야들아, 해가 중천이다. 빨랑빨랑 일어나 세수하고 학교가여" 청일거리는 아이들에게 학교갈 준비하라고 소리지르고 도시락을 싸야 한다.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작은애가 중학생이라 도시락을 세개나 싸야한다. "이놈의 도시락 좀 안싸면 소원이 없겠네, 학교에서 밥 좀 주면 안되나."하고 푸념을 한다.

일하려면 밥을 먹어야제. 부엌구석에 쭈그러 앉아 김치 쪼가기를 넣고 먼저 밥을 먹는다. 밥을 먹고 세탁기에 빨래를 겹싸게 돌려놓고 하우스 문도 열어놓고 산중턱 밭에 가서 김치거리를 뽑아 놓고 밥상을 차린다. 빨리 밥 안준다고 투덜거리는 남편, 아이들은 도시락 반찬이 맘에 안드니, 무슨무슨 성금을 나만 안냈는데 하며 조잘거린다. 밥 다먹고 설겅이 통에 빈 그릇을 담궈놓고 정리한다.

아침 9시. 오늘은 옆집 고추하우스로 일 가기로 했다. 품값 받는 일이 아니라서 9시에 가는 것이지 다른 때 같으면 7시에 가야 한다. "빨리 안 나오고 뭐혀!" 남편의 호통소리가 들린다. '내가 놀면서 안가는감' 설겅이와 빨래하는 것도 일 안가고 꾸물대는 것으로 간주하는 남편의 등쌀에 연장을 챙겨들고 나선다.

옆집 고추하우스 일은 무척이나 힘들다. 땅을 고르고 모를 날라주는 일은 남자들이 몫이지만 구부리고 앉아 하루종일 모종을 이식하는 것은 여자들이 해야 한다. 어두워서 고추모가 보이지 않을 즈음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부엌으로 직행, 저녁밥을 안치고 반찬을 준비하고 아침에 돌려놓은 빨래를 방구석에 낸다. 뒷걸에다가 개죽을 끓이고 돼지에게 사료를 한 대야 퍼주고 배고프다고 재촉하는 남편성화에 저녁밥을 들이밀고 나서 아침에 재워놓은 김치거리를 마무리하여 김치를 담근다.

이일 저일 다 마치면 12시, 방바닥에 등을 붙이니 몸이 천근만근, 내일도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니, 아이구 내 팔자야... 이진 일꾼인지 상머슴인지... 이런 저런 생각도 잠시, 곧 코고는 소리만 들리고 밤은 깊어만 간다. (한 여성농민의 수기 중에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돌듯 계속되는 생활, 그래도 이집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문제에서는 해방된 경우다. 제사가 있는 때나 장을 담궈 때등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 날이면, 그나마 몇시간 눈붙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성농민'이다.

3. 여성농민의 현실과 지위

1) 일이 많다.

① 농업노동

농업노동은 쉽게 말해 '농사일'이다. 이 농사일은 전에는 집앞 텃밭을 가꾼다든지 하는 극히 한정된 일만 했었다. 시집갔을 새댁시절부터 아이들이 웬만큼 클때까지는 집안일만 했지 들에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시키지도 않거니와 할 생각도 안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여자들이 새댁시절부터 다리걸어 부치고, 호미들고, 논이건 들이건 안다니는 곳이 없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한마디로 농촌이 '살기 힘든 곳'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역대정권의 농업회생정책의 일환된 흐름 속에 또한 최근 김영삼정권의 농어촌발전 대책이란 허울좋은 이름의 농업포기정책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은 농업생산만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꾸릴 수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젊은 인구 중심의 이농은 속출하고 있다. 농촌현실이 어려워질수록 여성농민들의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점점 늘어났으며 어려운 농촌살림이 그나마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여성농민들의 농업노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과거 남자들 일이라 여겨지던 강도높은 농업노동 뿐만 아니라 품앗이나 품삯노동, 가사일, 농한기의 부업노동에 이르기까지 여성농민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농업노동 분담율의 남녀비율 65년 75.5:27.5 → 92년 51.9:48.1)

그러나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의 담당자로 나서는 과정은 60년대 이래 젊은 노동력의 도시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노동력부족 해소의 방편이었으므로, 여성농민 스스로는 농업생산주체로서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생산주체로서의 자긍심도 갖지못한채 일구멍이 속에서 의욕을 잃게 되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질병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참여는 영농규모가 큰 작든 부농이든 영세소농이든 어느 경우나 예외가 없다. 부농의 경우는 농사보조자로서 영세소농의 경우는 절박한 생계유지를 위해 과도한 노동에 참여하면서 농업노동자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에 대한 댓가는 농가단위의 수입으로 포함되어질 뿐이고 여성농민 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라는 의식은 없다. 여성농민 스스로도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집안일의 연장 혹은 남편일의 보조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참여에 대한 댓가는 여성농민에 대한 지위를 문제삼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는 지점이 있다. 예전의 수도작 중심의 영농형태에서 특작중심으로의 영농형태 변화에 따라 여성농민의 농업참여도의 증가는 청장년층의 여성농민들을 중심으로 농업노동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에따른 농업경영에 대한 주체적 참여의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 각종기술교육(영농, 농기계조작 등)에 여성농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은 지금 농정의 형태에서는 부재하다. 의무는 존재하되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성농민들의 이러한 적극

적인 영농주체로의 참여의지를 모아 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서나가기 위한 여성농민회의 활동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 가사노동

이 역시 쉽게 말해 '집안일'이다. 언뜻 생각해서 밥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담고... 늘상 여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 집안일은 옛부터 고유하게 여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으며, 온가족의 건강과 휴식, 그리고 다시 생산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산 노동이다. 역할분담이 잘 되었느니, 못되었느니를 따지기에 앞서 매우 중요한 일임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농사일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집안일을 몽땅 여성농민이 해야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더구나 농촌의 가옥구조나 식생활방식은 더욱 여성농민을 힘들게 한다. 어차피 힘든 농사일을 해도 제값은 못받는 현실이지만 이 집안일의 경우는 전혀 그 댓가를 찾을 길이 없다. 도시의 직장인들의 경우 가족수당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가족수당이라는 개념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적 댓가라는 측면만은 아니지만, 재생산의 영역을 사회화시킨다는 점에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책정시 생산비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생산비를 책정, 수매가를 결정해왔던 쌀값에서도 여성농민의 노임은 반값, 가사노동의 부분은 계산되지도 않는 상황인 것이다. 저임금을 위해 저곡가를 유지해야만 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여성농민의 현실은 이것저것, 무엇하나 제대로 평가되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힘든 것이 무조건 나쁘다곤 할 수 없다. 그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보람을 찾을 수 있겠으나, 농산물금이 동금이요, 집안일은 동금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여성농민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관통하는 수탈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하겠다.

③ 출산, 육아

출산은 인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가장 고유한 여성의 임무이며 어떤 경우에도 모성은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나 여성농민은 어떠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몸사리고 누워 있기는 커녕 "너만 세상에서 아이를 갖느냐"는 한마디로 그냥 무시되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해도 과증하게 밀려드는 일의 양은 한시라도 여성농민을 쉴 수 없게 만든다. 통계에 의하면 아이를 낳고 들에 일하러 나오는 경우를 볼 때, 출산후 3일만에 일하는 여성이 66.6%, 일주일만에 일하는 여성이 26.2%등, 실제로 산전산후 몸조리가 제대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도 시부모 눈치 보여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등 여성농민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결국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것이 쌓여 도시여자와 비교해 항상 늙어 보이고, 병이 많다. 유산을 하는 경우도 매우 잦아 그 횟수가 구려 30번이 넘는 사람도 있다. 이를 놓고 단지 무지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육아의 경우 교육적인 측면은 거의 고려할 수 없다. 아이들은 바쁜 엄마의 틈에서 각종 농기계사고, 농약, 해충, 수로 등 위험물에 노출, 방치되어 있다.

보사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농어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은 519개소 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178개 읍소재지에 평균 2-3개소가 있고, 농촌지역인 1,257개 면과 35,113개 리에는 보육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얼마전 부총리가 여성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맞벌이 하는 부부의 경우 육아비를 공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맞벌이하는 부부의 육아비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육아의 부담을 개인에게만 두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화 시키겠다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는 직업의 여성농민'의 경우 어떻게 육아를 사회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다.

또 어린이 현장에는 '어린이는 모든 위험에서 제일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농민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린이'에 속하질 않는가 보다. 농업인으로서의 '여성농민'이 직업인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2) 여성농민의 건강, 최악의 상태

「병이 없는 여성농민은 없다」고 할 정도로 여성농민들의 건강상태는 악화되어 있다.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농사일과 이에 따른 농부중, 농약중독, 농업재해, 산전산후 조리 못함, 유산, 영양부족, 남편으로부터 매맞음...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농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많다. 더구나 농촌의 의료시설은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곳이 태반이고 있다 하더라도 낮은 질의 의료행위로 거의 의료해택을 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농어촌 인구가 전국민의 30%임에 비해 농어촌 의교기관은 14%, 의사는 9% 수준임) 기껏해야 보건진료소를 찾아가는 일, 병원이라도 갈라치면 하루에 몇번 안다니는 차시각에 맞춰 읍내로 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하루해를 꼬박 잡아야 가능하다. 결국 농촌에서는 돈도 없거니와 여유도 없어 병원엘 좀처럼 갈 생각도 않는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약국이요, 항생제나 진통제를 오용 또는 과용하게 되어 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몸이 아플 때 쉽게 찾는 의료시설을 보면, 약국 47.6%, 병원,의원 30.7%, 보건진료소 8.9%, 한의원,보건소 등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모성보호」란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여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출산후 60일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90일로 유급휴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의 경우 출산전후 건강을 보호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농업노동의 현장에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의료보험제도는 이중,삼중으로 농민을 수탈하는 세금이 되어 버렸다. 현재 공무원, 교원의보, 직장 의보, 도시지역, 농촌지역 의보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합간 재정상태를 보면, 공무원, 교원의보와 직장의보에서는 적립금이 3조원에 달할 정도이지만 지역조합은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며 농촌의 경우 재정적자 조합이 허다하다. 통합의료보험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농정7대 과제에서도 제일 먼저 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실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3) 여성농민의 권리행사 기회 차단

여성농민들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적으로 베풀기만을 강요해 왔다. 여성농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곧 암탉이 우는 것이요, 집안이 망할 징조라 하였다.

작게는 집안의 대소사에서부터, 마을회의, 농수축협 등 각종 권리행사기회는 모두

차단되었다. 아무곳에도 여성농민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생산수단 즉 토지와 농기계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의 주체로 서 있지도 못하다. 또 농업생산주체로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정책으로부터도 제외되어 있다. 과부가 아니면 농협의 조합원이 될 권리도 없으며 영농후계자 선정으로부터도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전업농은 밭 한평 내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은 대다수의 여성농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나무이다.

93년말 현재 농협의 조합원 1,945,159명중 160,479명이 여성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중 절반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이고,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다. 농협의 조합원제가 1가구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여성농민들의 경우는 아들 없이 사는 과부가 되지 않는한 조합원 참여의 길이 막혀 있었으며, 95년 6월 23일로 시행일자를 앞두고 있는 '1가구 2인 조합원제'가 실시되더라도, 현재 농협이 준비하고 있는 정관(예)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과부 며느리를 제외하고는 농협 복수조합원제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또 정부가 영농 후계세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영농후계자' 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3년 전체 영농후계자 61,915명중 267명으로 0.4%에 불과해, 전체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 0.9%에도 못미치는 비율이다.

이는 여성농민들에게는 노동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현실을 그대로 웅변해주는 것이다.

4) 가부장제 문화로부터의 고통

이 가부장제의 문화는 여성농민의 거의 모든 생활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농촌사회는 도시에 비해 봉건의식의 뿌리가 광범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뿌리깊은 봉건성으로 인해 여성농민의 지위는 남편의 지위나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성차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으므로 농민적 고통과 더불어 여성이기때문에 겪는 고통까지 가중되어 한층더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도시에서는 매맞는 여자를 위한 상담소나 피신처가 마련되어 있으나, 농촌에는 매맞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더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밀비재 하다.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남편, 시부모 공양과 육아의 부담을 분담키 어려워 잠깐이나마 집떠나는 일이 아직도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던 노동할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행사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이 가부장제 문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를 이용해 침묵만을 강요하는 정부정책과 정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농업정책 어디를 보아도 여성농민을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여성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어느 행정기관을 보아도 여성농민 담당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94년 말 농업행정체계 개편시 농림수산부에서는 여성담당인력계를 신설하였지만, 사업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농민을 동원하는 행정체계는 존재하지만 여성농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은 여성농민회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봉건적인 사회환경을 개혁하는 것 역시 여성농민의 지위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여성농민의 개인 문제, 집안문제 극복수준으로 협소하게 다뤄질 것이 아니

라 농촌사회내의 전반적인 봉건성 극복과 민주적 생활풍토 조성, 올바른 공동체 정신을 세워 나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과제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4. 여성농민운동이란?

1) 여성농민운동이란?

여성농민은 전체농민의 절반의 사람이므로 당연히 농민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야 할 사람이다. 또한 아무런 지위도 없는 농업노동자에 불과한 여성농민이 생산의 주역으로서 올바르게 인정을 받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성농민운동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여성농민의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WTO체제하에서 올바른 농업생산주체로 서서 전체 여성농민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즉 간단히 말해 '여성농민이 처한 여러 문제점들을 여성농민들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나가는 움직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활기간 내내 맞부딪치는 우리 여성농민 대중들의 모습은 답답해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랜 세월 희망없이 살아오는 동안 여성을 억압해온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요되고 길들여진 모습이다.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일깨우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 실제로 최근 여성농민운동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여성농민들이 이러한 굴레를 깨뜨리고 투쟁의 선두로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서 수많은 투쟁의 대열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체면에 얽매이지 않는 정의로운 품성과 모성애적인 끈기를 가진 사람이며, 일할 때도 놀 때도 함께하길 좋아하는 타고난 집단성과 조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을이나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다. 85년 소몰이 싸움의 최선두에서 소고삐를 휘둘렀던 것도 여성농민이요, 80년대 중반 수세투쟁, 고추투쟁등 수많은 농민투쟁의 현장에서 생산주체로서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다.

이렇게 투쟁의 현장에서 발견된 역동성을 조직의 힘으로 모아내고, 단순 동원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으로 서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여성농민운동의 시발점이었다. 과거 마을단위 활동가 부인 중심의 소규모 분회, 지회를 극복하고 89년 쌀값 보장싸움과 90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쌀수입저지 투쟁을 통해 마을단위 여성농민회를 기반으로 면여성농민회, 군여성농민회가 속속 건설되어 이제 전국적으로 여성농민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 건설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우뚝 선지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여농은 각 지역 여성농민회를 중심으로 여성농민만이 겪는 특수한 문제(농업인으로서의 지위 획득, 모성보호, 건강권, 탁아문제, 육아문제 등) 해결에서부터 민족의 생명산업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문제까지,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를 겪으며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여성농민의 힘으로 싸울 것이다.

2)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여성농민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농민운동이면 될 것을, 왜 따로 여성농민운동, 여성농민회를 하여야 하는가? 여자들끼리 모여 가정 문제를 밖으로 너무 드러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일부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가?

또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농민운동 내부의 활동가들도, 여성농민회가 활동가의 부인들에게 '농민운동의 필요성을 교육해서 밖에서 하는 활동에 군소리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전여농이 출발한지 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이해가 예전과는 달리 넓어진 듯하다. 내 아내가 여성농민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여성농민들도 여성농민회로 조직적 힘을 모아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보자. 왜 여성농민운동은 필요하고, 여성농민회로 여성농민들의 힘을 모아내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는가?

지금까지 여성농민회는 휘몰아치는 수입개방의 폭풍과 농업말살 정책 속에서 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왔다. 그러나 농민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성농민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여성농민들은 생산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던 건강권, 봉건적 문화 속에서의 문제, 각종 권리행사로부터의 기회차단등 여성농민들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느끼고 있고, 해결의 단초를 가지고 있는 여성농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직접 풀어나가야만 한다. 모순이 있는 곳에 투쟁이 나타나는 것은 삶의 첫 출발이 된다.

따라서 여성농민운동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농업, 농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식량자급율이 20%대로 하락하고 있으며, 농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민족의 생명줄, 식량주권인 농업을 지켜나가는 것은 600만 농민 전체의 일이며, 4천만 국민 모두의 과제이다.

둘째, 하늘의 절반으로 우뚝 서기 위한 것이다.

농한기, 농번기 구별없는 장시간 노동과 출산, 육아, 가사일로 몸을 돌볼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는 여성농민들이 아직도 농촌사회 속에서 뿌리깊은 봉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으며, 일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여성농민들의 투박한 손마디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

95년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선언문

1. 95년 여성농민운동의 방향

1995년 2월 10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제6차 대의원대회를 거쳐 “농업주체로서 여성농민의 삶을 책임있게 담보하는 전여농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전여농은 전체 여성농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여성농민조직이다. 올해로 출범한 지 6년을 맞이하는 전여농은 여성농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요구와 지향을 책임있게 대변하고, 여성농민의 삶의 진전을 위해 지역조직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그 힘을 근거로 집중하여 여성농민의 과제를 해결하는 통일단결의 성과를 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업생산의 주인, 생활의 주인 여성농민”

전여농은 올 한해 이러한 여성농민이 농업주체로 제대로 서기 위한 실천적 목표와 과제를 선정해 여성농민의 농업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95년 사업의 목표와 중점과제

95년 전여농의 사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로 첫째, 여성농민개혁과제의 실현과 둘째, WTO에 대응하는 여성농민대책 수립 셋째, 지자체를 통한 여성농민의 정치적 영향력 획득 넷째,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 생산주체화를 위한 총괄적 대책수립에 두었다.

중점과제로는 첫째, 농협조합원 가입운동을 전개하고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획득 둘째, 선거국면에서 여성농민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쟁점화 하는 것. 셋째, 후계자 할당제의 요구 및 실현 넷째, 통합의료보험 및 급여확대를 쟁취하는 것으로 정했다.

1) 사업의 목표

㉠ 여성농민대개혁의 과제를 실현하자.

92년 전여농은 전농과 함께 농업대개혁안, 여성농민대개혁안을 마련하여 우리 농업과 여성농민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여성농민이 안고 있는 문제는 농민의 절반 여성농민만의 문제 차원을 넘어 우리 농업이 자주자립적 식량자급, 소득보장, 환경보전형 통일농업으로 나아가는데 심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대개혁 실현을 위해 여성농민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농민 대개혁을 실현하여야 한다. 농업생산 주체로서의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한 확보, 여성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어촌 환경의 개선, 여성농민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농민대개혁안 참조)

㉡ WTO이행 특별법의 실시와 WTO에 대응하는 여성농민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농업정책은 국가와 민족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의해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재벌과 도시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 실현을 위한 희생물로 취급되어 왔다.

즉 엄밀히 말해 지금까지 농업을 위한 농정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의 농업정책도 역시 70년대 증산농정, 80년대 개방농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마디로 소수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구조를 조정하여 농업을 해체하고 농민을 말살하려는 농업구조 조정 농정의 맥은, 95년 6월 14일 농어촌 발전대책이나 95년 2월 15일 발표된 WTO준법에 대응한 농어촌발전대책에 모두 일관되어 있다. 정부가 6.14 농어촌발전대책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결국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낙후된 원인을 농업생산력의 부족과 농업 노동력의 질적저하로 지적하며 책임을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돌리면서 그동안 우리 농업을 힘들게 지탱해온 농민들을 무책임하게 몰아부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오히려 그동안 농업과 농민을 희생하며 질주해온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농업정책에서 찾아져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동안 어렵게 농업을 지켜온 고령농민과 여성농민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6.14, 2.15 농어촌발전대책 모두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며, 여성농민에 대한 농업생산주체로서의 인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농업 생산력의 48.2%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주체 인력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농업이 현재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즉, 영농후계 인력과 생산주체라는 측면에서 여성농민대책이 확고히 수립,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특정 농업생산인력을 경영전문화를 통해 집중육성하려는 농업구조조정은 즉각 폐기되고 농어촌대책은 전면재수립 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제를 통한 여성농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한다

여성농민들은 우리사회의 정치권력과 행정이 미치는 전 영역 특히 전국의 137개 군단위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 약 280만에 달하는 여성농민들이 단위 이하 전지역에서 생산과 생활담당자로 살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우리의 실천여하에 따라서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는 가장 기초단위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농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소외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그 어느 계층보다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생산과 생활의 현장에서부터 제기한 과제 자체가 곧바로 제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고, 이를 위한 실천활동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지방화시대는 그 어느때보다 여성농민의 역할과 조직적 힘, 이로부터 획득되는 정치적 영향력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몇몇 도시 인근지역과 공업화된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 군단위가 농업, 농민위주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행정 전반이 농민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또한 도시에 비해 심하게 낙후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의료실태 등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문제가 전 군에 걸쳐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과 함께 생활을 책임지는 여성농민들의 주도적 실천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올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개혁과 변화를 포기한 정부권력을 바꿔내고, 진정한 민주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갈 것이다.

㉔ 여성농민의 농업생산 전문인력화를 이룩한다.

우리 농업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주체인력으로서의 여성농민 인력을 농업종사 단순인력에서 농업경영과 기술농업의 전문주체 인력으로 세워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반 농사조건의 개선과 규모화, 여성에 맞는 농업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여성농민에 대한 영농기술, 농업경영교육 기회마련과 의식개혁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 등도 반드시 모색되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2) 중점과제

㉑ 농협조합원 가입운동과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획득은 여성농민의 농업생산 주체로의 권리를 확보하기위한 올 한해 전여농의 실천활동이다.

농협정관에 복수조합원제가 명시됨으로써 본격화된 농협조합원 가입운동이 갖는 의미는 첫째, 여성농민의 농민적 권리획득 즉 생산농민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과 둘째, 단위조합이 있는 면단위를 중심으로 활동의 폭을 갖게 됨으로 여성농민의 면단위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 셋째, 여성농민의 조합원가입 및 조합운영의 실제적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농협을 중심으로 벌일 수 있는 여성농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형태의 생산, 생활, 이용, 구매협동사업의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협에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것은 이 이외에도 농협민주화의 과정에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고령의 아버지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이 조합원자격은 농민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지위로 각종 대출 및 조합사업의 참여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아들, 즉 농업후계인력의 실질적 영농경영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이밖에도 조합장 선거가 막걸리 한사발이면 통하고, 조합운영의 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주인이 해야할 역할을 농쳐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등이 현실이다. 농협을 농민의 조합으로 바꿔내는 것은 농업, 농민의 영농과 생활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전을 가져오는 것으로 특히 영농후계

인력의 적극적 농협참여가 필수조건이 된다.

여성농민의 조합원 가입은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조합원의 상을 보여낼 수 있으며, 농촌사회의 안면이나 무원칙한 인간관계로 인해 묵인되고 개선되지 못한 기존 조합원들의 사업참여 풍토에 새바람을 일으켜 농협민주화의 주요한 역할을 맡아낼 수 있을것이다. 또한 농협조합원 가입뿐 아니라, 실제 농협의 사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직능별 이사등 임원에 여성농민조합원의 비례대표제등을 확보해 들어감으로써 여성농민의 생산과 생활전반에서 제기되는 협동화과제를 농협내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당면 지자제선거국면에서 여성농민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쟁점화 하는 것이 올해 주요한 과제로 정해졌다.

아직 봉건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농촌지역에서 여성농민조직이 후보를 내거나 개인이 부각되는 대응을 해내기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농업주체 인력으로(향후 우리 농업을 책임질 후계인력으로) 또 지역사회 생활주체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지자제하의 지역정치,행정에 여성농민이 이러한 과제를 틀어쥐고 깊숙히 개입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올 지자제국면에서 여성농민은 여성농민 정책과제를 선정, 공약화하여 후보간담회나, 공청회와 같은 적극적인 의사개진등으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 후계자 할당제 요구 및 실현

여성농민후계자 할당제 요구는 영농후계인력으로서의 여성농민의 지위를 확보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후계자 자격조건에 여성농민은 해당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자격조건 자체가 여성농민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되어있다.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여성농민에 대한 영농후계인력으로서의 인식과 함께 후계자 자격요건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후계자선정에서 자동탈락 될 수 밖에 없다. 94년도에 전여농의 요구에 의해 후계자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50점가산 및 영농 규모,경력산정,예비후계자 신청상의 우선권등 부분적 개선을 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일선 행정을 맡은 담당창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여농은 구체적으로 여성농민의 경우 후계자 신청연령을 현재 주농업연령중인 40세까지로 확대하고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할당제를 실시토록 하는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 통합의료보험 및 급여확대의 실현이다

통합의료보험 및 급여확대의 실현은 여성농민의 모성보호, 노동권보장, 건강권보장의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해야할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통합의료보험및 급여확대는 실상 여성농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의료복지 서비스차원의 정책이며, 이미 6공 초기에 3당 합의안으로 실현을 둔앞에 둔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효화 된 정책이다.

세계화를 천명한 김영삼대통령이 이번 외유이후 또다시 국민의 삶의 질을 거론하고 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통합의료보험및 급여확대의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에 관한 것이다.

올해 여성농민운동은 통합의료보험제의 실현을 위해 벌여왔던 지금까지의 실천활

동을 근거로 한번 더 힘을 모아 지자체 국면의 열린 정치공간을 심분 활용하여 반드시 통합의료보험 및 급여확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의료보험 실현이 농촌의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임에는 분명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농업노동에 의한 골관절계통의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여성농민대상 의료 서비스, 컴퓨터 단층촬영등 고가검진의 의보수가 조정, 산모원설치등 산전.산후 모성보호에 대한 의료수가조정및 의료서비스, 농업노동으로 인한 근신경계질환등의 한방의료수가조정 및 의료서비스, 각종 예방의학관련 서비스, 건강상담 및 1차진료권 확보와 가정의 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의보수가조정및 서비스, 농약 및 농업재해에 따른 의료대책등 여성농민의 농업생산과 모성보호와 관련된 진료권, 급여확대의 내용을 교육·선전하고 우리의 요구를 조직화할 것이다.

이상으로 95년 여성농민운동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 여성농민운동은 생산주체인 여성농민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여성농민이 처해있는 농업·농민으로서의 조건과 문제로부터 실천활동을 조직화해서 농업·농민문제해결과 이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여성농민반 활동론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연사부 사장 임덕근

1. 여성농민반 활동은 정말 중요한가?

농활을 한번쯤 와 본 학생들이 여성농민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습들이 몇가지 있을 것이다.

피약별 아래에서종일 밭 매는 모습, 학생들에게 반찬 한가지라도 갖다주려는 모습, 농산물 수입과 정부의 농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분노하고 싸워야 한다면서도 막상 자신처럼 별 불일 없는 존재가 무엇을 하겠냐고 자신 없어하는 모습.

여성농민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들이 정말 농민문제와 여성농민들이 안고있는 성적 억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변혁의 주체로 설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여성농민반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남는 성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농민의 모습은 한국의 기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지속적으로 농업을 몰락시키면서 농업,농민의 희생위에 부실공사로 건설되어 온)가 강제한 왜곡된 의식 때문이다.

생산적인 노동으로 강인함을 가진 여성농민

현재 우리나라 농업노동에서 여성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더군다나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기계화도 되어있지 않고 경지정리도 거의 되어있지 않은 밭농사가 중심이다. 고되고 힘든 노동을 수십년간 지속하며 살아 온 사람들이 바로 여성농민들이다. 생산적인 노동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강인함을 갖게 되며 본래 건강한 의식을 갖게 마련이다.

수십년을 힘든 농업노동을 하며 살아 온 사람들이 갖는 강인함과 건강함이 바로 여성농민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성농민 운동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학생 농촌활동은 여성농민 조직화에 많은 도움이 돼...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거기에 육아까지 세가지 역할을 해야하고 한편으로는 뿌리

깊은 봉건성과 가부장제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농민들은 돌아다니는 것조차 힘들고 남성활동가들처럼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여성농민의 조직화정도는 상당히 낮고 그래서 농활은 여성농민에게 아주 유력한 활동공간이 되어왔다. 발로 뛰어다니기가 쉽지 않은 여성농민들을 대신하여 학생들이 많은 일들을 해주었고 그러한 성과로 농활 이후 회원들이 늘어나고 여성농민 마을분회나 면지회가 건설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이 열심히 여성농민반 활동을 하고 여성농민 조직이나 활동가가 후속작업을 잘 할 때 가능한 것이다.

2. 여성농민조직이 없는 군은...

한편 여성농민조직은 커녕 활동가조차 없는 군으로 농활을 가는 경우 여성농민반 활동을 같이 계획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활동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를 누가 챙길 수 있을지 막막하다. 사실 도조직이 규모있게 운영되는 도에서도 활동가조차 없는 군을 챙기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군들에서 여성농민반은 의미가 전혀 없을까? 아무리 활동을 잘한다 해도, 결국 아무 성과도 없는것일까?

아니다. 여성농민 조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농민반 활동이 중요하다. 미처 여성농민조직들이 해내지 못하는 교육, 선전사업을 농활이라는 장을 활용해 학생들이 대신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농민 활동가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농활 온' 학생이기 때문에 더 쉽게 해낼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

그리고 이런 군에서 농활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도의 여성농민 조직과 함께 의논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어떤 목표하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으며 또한 농활의 성과가 도조직을 통해 보존될 수 있다.

3. 여성농민반 활동, 어떻게 준비,수행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 모범적인 전북대의 작년 사례를 정리해 보자. 먼저 여성농민반장은 작년까지 여성농민반 활동이 어떠했는지, 올해는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활동해야 할 지 잘 아는 고학년이 대부분이다. 분반원이 몇사람 필요한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히 알고 있다.

그래도 답사에 결합하여 부녀회장(공식성 확보)과 함께 의논하여 계획을 잡고 다시 한번 마을 상황을 바탕으로 본활동을 준비한다.

3일-1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오전엔 '농활학교'라는 전제교육에 결합하고 오후에는 분반별 모임을 한다. 분반모임에서는 여성농민문제, 여성농민운동등 기본학습뿐만 아니라 농활기간중의 분반활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여성농민반을 여성농민학교로 만들기 위해 교장, 출석부, 개근상, 상품들을 준비하고, 매일매일의 프로그램을 짜서 노래배우기, 장구장단 배우기 등 구체적인 기능을 익힌다. 그리고 대부분의 팀에서 촌극을 직접 만들어 본다. 주제는 마을실정에 맞춰서 정하고 형식은 신파극, 노래극, 촌극 등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분반원들이 함께 대본을 짜고 연습하고 전제모임때 팀별로 공연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고,

준비가 되지 않은 팀은 다른 팀의 공연을 보고 준비하기도 한다. 약간은 유치하고, 또 실수도 많지만 촌극은 여성농민분반에서, 마을잔치에서 큰 인기다.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주제전달이 잘된다. 농활이 시작되면, 여성농민분반원들은 목적의식적으로 여성농민분들과 근로작업을 할수 있게 배치한다. 그리고 각 대원들은 주민 1명과 각자 딸, 며느리, 아들, 사위의 관계를 맺는다. 농활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로 '아버지', '어머니', '내 딸', '내 아들'의 호칭을 쓴다.

저녁식사후엔 오늘 분반모임 내용도 알리고 꼭 참석하시라고 호별 방문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부침개를 부치는 등 음식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다.

4. 전북대 여성농민반 평가서 발췌

1) 실행기 평가

< 분반운영 평가 >

① 1기 : 6월 29일 - 7월 3일

준비기 작업이 부족한 마을의 미흡함이 여실히 드러난 기간이다. 주체와 분반원들이 잘 준비되고 결의된 마을과는 달리 몇몇 마을이 첫모임을 하는 것에서 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무리한 분반내용을 준비하기 보다는 여성농민반 모임을 잘 알려나가고 분반원들간의 결의를 모으는 초기와, 분반모임을 정착시키면서 준비된 내용을 잘 조직한 후기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군 여성농민회와의 중간평가를 통해서 다른 마을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이후 활동을 결의하는 기간이었다.

② 2기 : 7월 4일 - 7월 7일

분반모임이 잘 정착되어 간 시기이다. 각 마을 상황과 여성농민의 현 실정을 보다 깊숙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분반내용을 설정하면서 전개되었다. 특히, 부안군은 여성농민반장을 비롯한 전 분반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결의하였다. 중앙주체는 이 시기 많은 활동 보다는 몇몇 마을을 설정하여 중간 평가 이후의 마을 상황을 점검하면서 근로도 함께 전개하는 시기이다.

전체적으로 고른 분반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모임을 전개하지 못한다거나 분반원들의 수동적 자세를 극복하기 위한 전체 대원들의 확고한 투쟁이 필요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결의를 잘 모아내어 이후에는 더욱더 큰 성과로 승리하는 여성농민반 운영을 만들어 보자.

2) 모범 사례

< 전체분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일궈낸 점 >

① 주산면 소산마을

군 여성농민회에서 강연이 있었던 날이었다. 사전에 공간 정리에서부터 잘 정돈되어 있었다. 강연이 시작하기 전에 분반원들이 사전에 준비한 촌극(진주난봉가를 재미있게 극으로 변화시킴)을 공연하였다. 여성농민들은 내용 전달은 잘 되지 않았지

만, 재미있게 지켜 보셨다. 10명의 분반원들이 낮설고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연극이라는 어려운 작업들을 잘 조직해 내었다.

② 하서면 청서마을

이 마을 여성농민반 분반원들은 모두 건강상식 책임자, 노래 배우기 책임자, 강연 책임자 등 모두 역할을 분담하여 그 주제가 되는 날에는 그것을 맡은 책임자를 중심으로 분반내용을 이끌어 갔다. 여성농민반장 중심의 단편적 운영을 탈피하고 분반원들의 능동적 사고를 유도해 낸 좋은 예라고 볼수 있다.

< 마을 목표를 잘 수립하고 전개한 점 >

① 하서면 서당 마을

이 마을은 원래 분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지 못하면서 모범을 창출해 낸다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여성농민반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분반원들이 규율을 엄수하고 계획된 내용을 끝까지 수행해 나간 마을이다. 여성농민반이라도 모범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고 분반원들이 결의하게 된 것이 모범이다.

< 분반을 준비하는 분반원들의 모범 >

① 백산면 산내마을

어느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근로가 축소되고 시간이 남는 것을 이용하여 전체 여성농민분반원들이 넷가로 가서 저녁에 분반활동 때에 준비할 음식으로 조개를 잡았다. 비를 맞고도 분반의 좋은 분위기를 위해 노력한 분반원들의 열정을 모범으로 제시한다.

<분반의 모범 정형을 이루어낸 성수면 성수리 > -「여성농민 7호」 연대의 글 참조

분반장 : 푸른나무 지리산 이 은 회

① 내용에서의 모범

여성농민 집중분반이 30일부터 마을잔치 전날까지 진행.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그리고 여성농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94년의 투쟁목표인 쌀수입반대 국회비준 저지 투쟁에 대한 내용들을 매일 일관되게 얘기하면서 단결의 중요성을 매 분반에서 강조, 분위기를 모아냈다.

② 주위 집중을 잘 이루어 내는 형식에서의 모범

- 여성농민학교

여성농민분반장이 선생님이 되고 어머니들은 학교에 입학이 된 학생이 되어 출석부에 학생(어머니) 이름도 적고, 어머니들이 명찰에 자기 이름을 직접 써 착용하였다. 이 형식은 어머니들에게 자기 이름을 찾아주는 내용성과 더불어 어머니들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집중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물당번(집주인)도 있어 분반때마다 물을 꼭 떠옴

- 마을 부녀회장님을 잘 추동하여 어머니들의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진행.

③ 어머니들을 잘 모이도록 하는 방법 실행의 모범

학교형식을 출석부를 만들고 출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적이 좋으면 마을 잔치에

서 상과 상품을 주기로 약속하여 직접 상장의 모양을 잘 만들어 코팅을 하여 마을 잔치에서 상장과 상품을 수여.

그 상장을 만들기 위해 근로를 빠져가면서 사람들에게 야단도 맞았지만 분반장의 성의와 열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④ 분반일지를 구체적이고 성실히 잘 쓴 모범

이 분반의 일지를 읽어보면 분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쓰여있다. 이러한 분반일지가 실제 필요한 것이다.

<분반원의 적극성으로 분반이 잘 된 성수면 금동리>

분반원들이 생기있고 재롱을 잘 피운 곳이 바로 성수면 금동이다. 흔히들 분반을 진행하다보면 어린 후배 분반원들의 소극적 자세로 분반장이 힘들어 하는데도 이 모듬은 분반원 모두가 어머니들의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적극적이었다.

3) 전체 중화, 평가

올해 여름농활 여성농민반 운영은 대체로 고르게 잘 전개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전에 준비기 교양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공유되었으면 실행기 분반원들의 자신감과 결의를 더 확고하게 내올 수 있었을 것이다.

< 간과해서는 안될 것 >

① 연대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만의 내용으로 분반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일방적인 모습이 아니라 군 여성농민회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이기 위한 연대투쟁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

② 실행기 실무작업들을 잘 하자

분반일지 작성과 중간, 전체총화를 통한 분반 내용의 항시적 점검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겠다. 특히, 분반일지는 농활이 끝난 후에야 전체를 한꺼번에 작성하면서 심도깊은 고민보다는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욱 컸었다. 선전작업 또한 미리 준비되지 못하고 농활을 수행하면서 진행되는 미흡함도 있었다. 준비기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③ 주체의 문제이다.

분반원은 물론이고, 분반장조차 실행기에 거의 닥쳐서 선정되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간의 비판적 평가를 내올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반장 중심의 분반원 구성과 결의를 빨리 내올 때만이 실행기 결의높고 내용성 있는 분반 내용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 여성농민반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1) 올해 처음 배치된 마을

그 마을에 배치된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여성농민반은 어떤 의의를 갖게 되는지 자리매김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여름농활만을 사

고하는 것이 아니라 '농학연대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연대, 4계절 농활, 또 내년, 후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번 여름농활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이뤄보려는 조급함과 그 성과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농활을 들어갔던 마을이라면 자신들의 기간 활동이 어떠했었는지 정확하게 진단, 평가해야 한다.

2) 불행하게도 전혀 여성농민반 활동이 되어지지 않았던 마을

이 경우에도 우리 마을은 정말 안된다고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안된 이유를 알게 알아야 할 것이다. 밭이 많고 특히 담배작업이 한창인 마을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여성농민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일을 도와 드리면서 이야기하는 '호별 방문'으로 해야 할 것이고 어렵지만 농활기간 중 1-2회의 전체모임을 해 보도록 하자.

3) 한편 여성농민반 준비를 전혀 못해서(주체가 없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준비부족으로) 여성농민반이 안될 경우라면 그 농활대는 60%의 활동을 방기한 셈이다. 이런 농활대는 이번엔 주체를 되도록 일찍 마련하여 준비를 잘 해 보자.

4) 잘 모이고 재미있었고 잘 한 것 같은데 성과가 없는 경우

목표를 잘못 설정했거나 아예 목표가 없었던 경우이다. 그리고 여성농민회나 여성농민 활동가와 연대 부족으로 조직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

5) 준비 잘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잘 한 경우

작년 성과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자.

일의 성과는 사람으로 남는다. 특히 학생들은 일회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적 연대활동을 책임질 사람을 반드시 마련하여 농활이후의 여성농민회나 여성농민과의 연대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6. 여성농민반 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것은? (당부의 말씀)

1) 학생들이 직접 앞에 나서지 말고 가능한 여성농민들이 나서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이제까지 여성농민반 활동을 보면 인사도 학생들이 하고, 노래도 학생들이 가르치며, 강의도 학생들이 하고, 갈 때 인사도 학생들이 하곤 했다. 어찌보면 여성농민들은 손님이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마을의 여성농민 한 분에게 정성을 들여 그 분이 시작과 끝을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2) 여성농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여성농민들의 이야기는 생활속에서 녹아나는 농업, 농촌의 현실이다. 학생들이 얘기하고픈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지도 모른다. 엄마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로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결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하

자.

3) 질문거리를 많이 준비하여 가르치는 식보다는 대화하는 식으로 진행하기 바란다.

4) 조급하게 하지 말고 끈기있게 임해주길 바란다.

▣ 농촌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 ▣

1. 여성농민 7호
2. 전북여농 노래집 [땅의 사람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으로 문의하십시오